Journal of the Humanities

인문연구

제96호 / 2021. 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소 임원

소　　장: 정우현 교수(영남대 영어영문학과)

부 소 장: 한곽희 교수(영남대 철학과)

운영위원: 손승회 교수(영남대 역사학과)
백찬욱 교수(영남대 불어불문학과)
서인석 교수(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송병렬 교수(영남대 한문교육과)
이현진 교수(영남대 유아교육과)
정병석 교수(영남대 철학과)
우재호 교수(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부)

연구교수: 김윤미(영남대 유럽언어문화학부)

연 구 원: 김윤미(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덕화(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우건(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최은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행정담당: 김덕화(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목 차

• 편집노트 ····· 편집위원회 / i

【일반논문】

• 영어 발음에 대한 한국인 평가자의 성향과 일관성 연구
····· 박상진 · 이유리 · 윤여신 · 윤규철 / 1

• 멜빌의 『피에르, 혹은 모호함』에 나타나는 미국적 이상주의의 정념적 잉여로서의 모호성: 흑인여성노예 문제를 중심으로
····· 정진만 / 25

• 좀비(화)의 폭력 드러내기: 조이스 캐럴 오츠의 『좀비』
····· 강영아 / 53

•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에 나타난 더블과 경계 연구
····· 민현주 / 79

• 1884년 청나라의 베트남정책과 권력구조 변화
····· 이영옥 / 111

• 리쩌허우李泽厚의 하이데거Being에 대한 대접론对接论
····· 안성희 / 149

【편집노트】

이번 호에는 총 13편이 투고되어 6편이 게재 확정되었다. 게재률은 46.15%이다.

이번 96호에는 문학, 언어학, 철학, 사회학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었다. 그리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문학, 어학과 관련한 논문들이 다양하게 실리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영미 및 유럽 문학 연구의 결과물이 세편이나 실렸다는 점이다. 그 중 두 편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주목되는데, 두 논문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인종적, 계급적 타자에 대한 인식을 사회를 재현하는 문학을 통해 읽음으로써 미국사회의 불안과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먼저 「멜빌의 『피에르, 혹은 모호함』에 나타나는 미국적 이상주의의 정념적 잉여로서의 모호성: 흑인여성노예 문제를 중심으로」는 주인공 피에르가 미국의 은유라 가정하면서, 허먼 멜빌이 남북전쟁 전 미국에서 '자유의 제국'의 낙관적 비전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모호성을 어떻게 심문하는지 탐구하고 있는 연구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백인남성들이 흑인여성노예를 둘러싸고 드러낸 모호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에서 주목할 연구라 할 수 있다.

「좀비(화)의 폭력 드러내기: 조이스 캐럴 오츠의 『좀비』」는 미국 작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좀비』가 타자의 은유인 '좀비'를 통해 미국 사회의 폭력을 폭로하는 텍스트임을 분석한 논문이었다. '밀워키

의 살인마'로 불리는 다머의 실화가 바탕이 된 『좀비』는 유색인 이주자를 좀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백인 화자의 욕망을 통해 미국 사회의 불안과 폭력을 극단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라는 분석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인문연구』 96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읽고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들에 쏟았을 투고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쉽게 이번 호에 실리지 못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